

▶ 준비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에서 DU리더스 B등급 장학생으로 뽑혀 해외문화탐방을 가게 되었다. 시험이 다 끝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것저것 여행용 가방에 챙기고 대만에 대해 알아보았다.

▶ 1일차(6/22)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심사를 거쳐 면세점을 둘러보니 벌써 탑승할 시간이 되었다.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렸으나 기내식도 먹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며 사진 찍다보니 이미 대만 중정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공기가 너무 뜨겁고 습해서 매우 더웠다.



곧 처음 보는 2층 버스가 등장하고, 3일 동안의 이동 수단이라고 했다. 처음 타고 도착한 곳은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인 고궁박물관이었다. 4층의 중국 궁전 양식으로 지어진 이곳은 중국 5,000년의 역사와 문화 예술의 집합체였다. 신석기 시대부터 청왕조에 이르기까지 약 62만점의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유물 대부분은 장개석 정부가 북경에서 쫓겨올 때 북경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가이드분께서 '고궁박물관은 김치찌개'라고 기억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다. 왜냐하면 고궁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냄비, 배추, 돼지고기이기 때문이다. 냄비는 모공정(毛公鼎)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정(鼎)이라는 글자는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냄비 속에는 그 시대의 문자가 새겨져 있어 한문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배추는 옥으



로 만들었는데 인공색소로 물을 들인 듯 색상이 매우 정교하였다. 메뚜기와 여치가 배추위에 놓여있었는데 확대경으로 보니 털까지도 표현되어 있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동파육이라고 하는데 돌을 깎아 칠을 해놓은 것으로 비계까지도 섬세하게 나타나 있었다. 박물관 내부에서는 사진촬영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진은 찍을 수 없었다.



다음 코스는 타이페이 101타워였다. 그 동안 최고 높이(509m)를 자랑하다가 최근에 두바이의 버즈두바이(828m)에 밀려 세계에서 2번째 높은 건축물이 되었다. 태풍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01타워에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로 공식 인정받고, 각종 매체에서 '총알 엘리베이터'로 보도되었던 엘리베이터가 있다. 일본의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5층 매표소부터 89층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겨우 37초이다. 그러나 내려가는 시간은 45초인데,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를 올라갈 때 보다 늦춘

다고 한다.



89층 전망대에서는 유리창이 동서남북으로 나있어서 대만 타이페이의 전체 모습을 다 볼 수 있었다.

또한 전망대의 중간에는 101타워의 균형을 잡고 있는 균형추가 있었다. 고층빌딩은 균형추가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지상부의 윗부분에 균형추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균형추의 무게는 660톤이며, 균형추로 태풍이나 지진 발생 시 발생하는 움직임을 40%정도는 감소시킨다고 한다. 구경을 다하고 나서 대만 뷔페를 먹으러 갔다. 한국음식도 있었지만 한국만큼은 맛이 없었다. 대만음식도 생각보다 향과 맛이 특이해서 먹기 힘들었다.



야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어두컴컴했다. 야시장 바로 앞에 용산사가 있었기 때문에 용산사를 먼저 구경하고 나서 야시장을 구경하기로 했다.



타이페이에는 수많은 사원들이 있는데 이 중 용산사는 가장 오래되고 전형적인 대만의 도교사원이다. 들어서자마자 진한 향냄새와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좌청룡우백호처럼 들어 갈 때는 용문(龍門/전면에서 볼 때 우측)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호문(虎門)으로 관람을 하고 나온다.



제사상과 같은 곳에는 꽃, 과일, 채소 등을 올려놓고 기도를 한다고 한다. 소원을 빌고 싶었지만 시간관계상 마음속으로 빌고 나왔다.



용산사에서 바로 나와 도착한 곳은 바로 야시장. 예전에는 뱀, 자라 등을 판매하고 한편으로는 환락가였다고 한다. 하지만 뱀과 같은 혐오스러운 것은 점점 피하게 되어 대부분 먹거리 식당으로 거듭났고 환락문화는 정부에서 철저히 용납하지 않으므로 대만에서 사라진지 20년 가까이 된다고 한다. 야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주로 먹거리 위주의 가게가 많았다. 의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가게, 오락실 그리고 마사지하는 곳도 있었다. 대만은 마사지가 전통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필수 관광 코스이지만 가격이 좀 비싸서 받지는 못했다. 저녁을 먹은 상태라 많이 사먹지는 못하고 과일주

스만 사먹었다.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다 되어 2층 버스를 타고 바로 호텔에 갔다. 그 후 좀 쉬다가 친구들과 아쉬운 마음에 다시 야시장으로 가서 구경을 좀 더 했다. 그런데 야시장 음식이 대부분 기름지고 냄새가 특이해서 사먹는데 망설였다. 끝내 특이한 음식은 사먹지 못했다.